

□ '제1회 여성영화제'를 통해 본 여성영화의 나아갈 길

성차별 이데올로기 깨는 유화적 수단

김 선 아

(한국영화연구소·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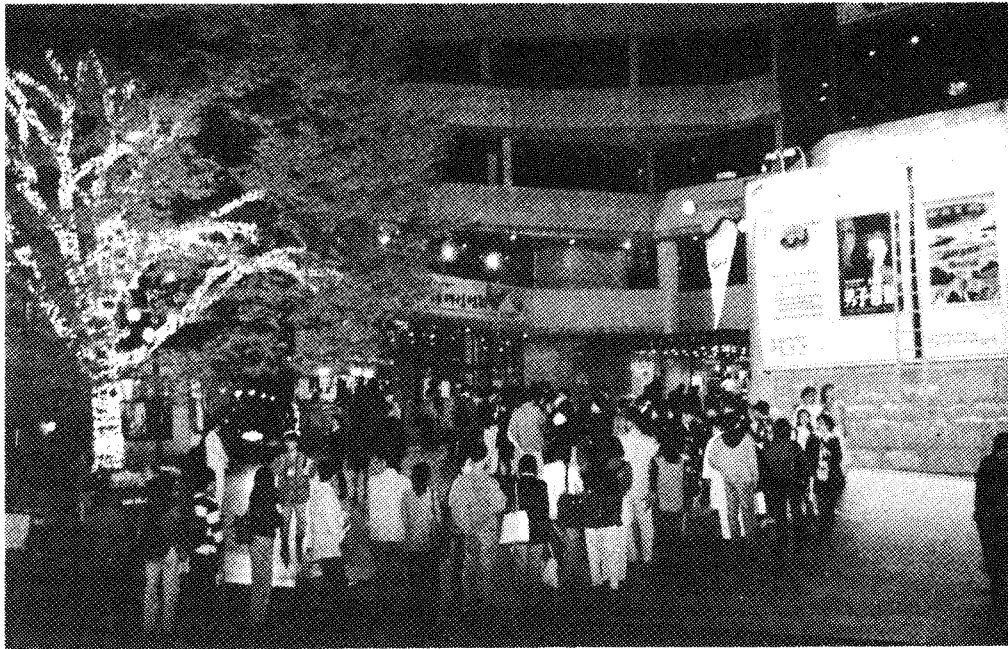
7일간의 긴 여정을 끝으로 제1회 서울여성영화제의 막을 내렸다. 13개국에서 만든 29편의 영화와 단편 및 비디오 경선작품 10편이 2만명의 관객과 만났다. 영화제 기간동안 대학로를 숨막히게 했던 영화제에 대한 그 뜨거운 열기는 그동안 얼마나 사람들이 여성과 영화, 그리고 여성의 현실 및 역사를 스크린을 통해 보고자 목말라했던가를 느끼게 해줬다.

더 넓은 대중매체의 호소

페미니즘이라는 말은 이제 서구에서 낡은 이데올로기로 치부되고, 모든 정치적 투쟁은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틀바구니속에서 그 함축적성을 찾아 헤매고 있다. 제3세계 국가인 이나라에서 페미니즘보다 훨씬 더 소박하고도 대단히 타협적인 '여성영화'라는 개념을 내걸고 영화제를 연 이유는 무엇인가. 거기에는 아마도 변화와 발전이 더딘 우리의 낡은 성차별 이데올로기를 붕괴시키는 데에 의의가 있을 것이다. 이번 영화제에서 가르키는 '여성영화(women's film)'와는 분명 다르다. 제1회 서울여성영화제에서 여성영화라는 단어는 여성을 위한 여성에 의한, 여성의 영화라는 페미니즘의 가치와 보다 더 가깝지만, 페미니즘이라는 아카데미즘 틀을 벗어나 보다 넓은 대중들과 만나고자 하는 취지에서 여성영화제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다.

여성·영화로의 수정

여성영화제의 디포커스 부문 영화 중 '리옹으로의 여행'(1980년)을 감독한 클라우디아 폰 알레만은 '독일영화의 밤'에서 여성영화라는 개념은 미학적 범주든 사회학적 범주든 어떤 범주로도 묶을 수 없는 개념이므로, '여성·영화'라는 개념을 사용해야 한다고 날카롭게 지적한 바 있다. 1973년 헬마 산더스-브람스(독일, 창백한 어머니)감독, 1980년)와 클라우디아 폰 알레만이 주도한 세계 최초의 '제1회 여성·영화



▲대학로에서 개최된 '제1회 서울여성영화제'

2만명 관객 색다른 문화의 영화에 큰 호응 학술적 페미니즘 벗어나 대중과 만나려 해 여성억압 갈등에 지속적 고민 필요

제'와의 국제적 여성연대라는 의미에서, 이번 제1회 서울여성영화제에서 명명한 '여성영화'는 제1회 '여성·영화'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새로움에 대한 열광

영화제 상영작은 새로운 물결, 아시아·태평양 영화, 한국 영화, 정점, 디포커스 부문, 단편 및 비디오 경선부문 등 총 6개 부문으로 구성, 분류되어 있다. 부문별 작품을 비교해서 뚜렷하게 드러나는 점을 거시적으로 말하자면 영화와 현실은 결코 떨어질 수 없다는 점이 다.

아시아영화 대부분은 가족이라는 강제된 틀과 봉건제 사회라는 현실이 얼마나 여성을 억압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려고 한다. 그러나 아시아태평양 영화부문이라고 한 데 묶은 또다른 호주영화는 원주민과 백인간의 갈등 '무소유'(마곳 나쉬, 1994년), '어둠 속의 비명'(트레이시 모트, 1990)과 동성애자들의 하위문화를 다룬 '당신은 농담을 받아들이지 않아요'(비키 톤, 1989)에서 알 수 있듯이 아시아부문 영화들과는 다른 주제를 다루고 있다. 한국영화부문은 1950년 한국

영화공간으로 회귀하고자 한다. 우리가 이 시기에 주목하는 까닭은 한국영화 중에 과연 여성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은 영화가 있는가 라는 지금까지의 질문을 한국영화 속에 새겨진 여성의 흔적과 이미지들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 전회시키는 것이다.

정점부문과 새로운 물결 부문은 관객들이 가장 좋아하는 부문이었다. 서구에서 동시대에 제작된 작품들이기 때문에 다루는 주제나 형식도 무척 다양했으며, 관객들은 그러한 다양함을 낯설음이 아닌, 새로움에 대한 열광으로 반응했다.

자아통합 갈등의 확인

이번 여성영화제가 페미니즘 영화의 역사에 대해 침묵하고 있지 않았다는 증거는 단연 디포커스 부문에서 드러난다. 독일의 뉴저먼 페미니스트 시네마를 중심으로 작품을 선정했던 디포커스 부문은 1990년대 여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를 어떻게 영화로 담아내며, 또한 이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반성하게끔 만드는 소중한 자리이기도 했다.

격년제로 열릴 서울여성영화제는 많은 관객들의 호응에 힘

입어 계속 열리리라 기대된다. 여성영화제라는 자리가 아니라면 결코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었던 많은 작품들이 선을 보였고, 2만명의 관객들이 이를 박수로 호응해 줬다. 상영시간, 진행상의 미숙 등 영화제라는 거대한 조직을 움직여 나가는 데에서 보이는 문제점은 2회

시리즈—경희의 유산을 찾아서

⑦ 문(門)

오일환, 이연의

(중앙박물관 연구실)

문은 하늘로 트인 통로를 상징하며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나타내기도 하고 죽음의 통과 의례를 표상하기도 한다.

문은 처음의 시작으로도 여겨져 문열림은 천지 창조의 첫 순간을 상징한다. 문은 복이 들어오게도 하고 잡귀를 쫓는 기능도 한다. 우리 조상들은 재앙, 잡귀, 악운들을 막기 위해 특정한 신들의 화상이나 부적, 글귀들을 붙여 애환을 쫓기도

서울여성영화제에서 보완되리라 믿는다. 그리고 여성이라는 성, 그로 인한 많은 자아 통합의 갈등을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이 영화제의 자리였으며, 이는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할 숙제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 다.

여성영화인의 공동연대라는 목표를 내세운 '여성영화제'가 지난 17일 화려하게 문을 열었다. 위 사진은 대표적 출품작인 '전사의 집표'(감독: Pratibha Parmar, 영국) 중 한 장면



□ '우수마당극 퍼레이드'를 다녀와서

연극에 대한 열정 '후끈후끈'

지난 3일부터 26일까지 '97 세계 공연예술축제 서울·경기'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우수마당극 퍼레이드'가 마로니에공원 및 성균관대학교 금잔디광장에서 열렸다.

열린공간인 야외무대에서 마당극 감상을 통한 서울시민의 문화향유 증대와 소비적인 대학교의 야외문화를 건전한 방향으로 이끌고자 제작품을 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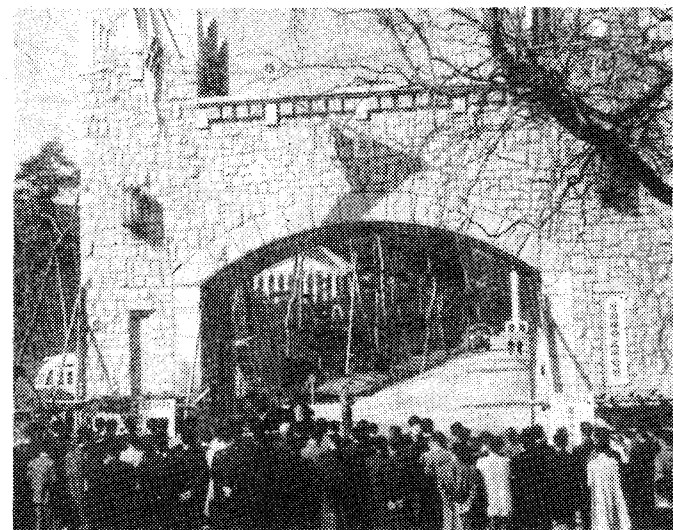
주말이 되면 마로니에 공원은 연극을 보러 온 사람들의 열기로 후끈거렸다. 연극광이라고 스스로 없이 밝힌 김준호(성균관대학교)군은 "축제가 분위기가 무척 좋다. 그간 대학로에 이렇다 할 놀이문화가 없었는데 이번 연극제가 새로운 문화의 한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다"며 "연극도 재미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입장료가 없다는



▲성대에서 열린 가라구미 일본연극단의 '바다 휘비람'

연했다. '바다휘파람', '두지리 칠석놀이', '동이풀이', '밥'의 작품들이 선보여지는데 이것들은 '97세계연극제'에 나갈 우수작품들이 다. 특히, 성대 금잔디광장에서 열린 '바다휘파람'은 일본 극단 가라구미의 작품으로서 이 행사를 위한 특별공연작이다. 제주도사람과 일본인의 주체성 문제를 주된 내용으로 다룬 이 연극을 보기 위해 많은 대학생들이 참여했다.

것이 맘에 든다"고 멋쩍은 듯 말했다. 마지막날에 열린 극단 길라잡이의 '밥' 연극에는 어느 연극보다 많은 인파가 몰렸다. 마지막 공연이라 아쉬운지 사람들의 표정에는 긴 여운이 남았다. 이번 열린 우수 마당극 퍼레이드를 기반으로 앞으로 열리게 될 세계연극제가 성공적으로 치뤄져야 하겠고 국내 공연계의 수준을 한층 높일 계기로 평가되어야 하겠다. <김동혁기자>



◀새로운 세계에 대한 희망을 상징하는 등용문

하여 승리를 거두는 장소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문은 외계와 내계의 연결뿐만 아니라 새로운 세계와의 만남을 상징하기도 한다. 우리 경희인은 등용문을 경계로 새로운 학문의 세계로 접목하게 되고 온후한 학술 연구의 전당에서 진리에 다다른 여러 방법들을 접하게 된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등용문을 넘어서 또다시 새로운 세계로 한발 내딛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 등용문 안에서 미래로의 믿음을 창조해 내야 한다. 20세기말이자 21세기의 시작점에서 우리는 '평화의 문'을 건설하는 도정에 함께 서야 할 것이다.

를 심어주고자 최상부에 고대 한국식 관(冠)의 형태를 살려 쌓아 올린 아치형의 적석건축물이다. 이는 우리학교역사 초창기에 품고 있던 원대한 비전

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다. 또한 국제 경기장의 규격과 동일하게 지어진 대운동장 입구의 선승문(善勝門 1967.7)은 선의 경쟁에서 이기는 뜻과 선전

한국을 움직입니다
세계를 움직입니다-